



주 제:	“행복하여라”	“연중 제 4 주일”	2008년 2월 2일
복음 묵상:	마태 5,1-12 나)	스바 2,3; 3,12-13	1 코린 1,26-31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하고 시작되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부끄럽지 않고 사랑스럽다면,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더라고 그것이 기쁠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냄새가,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면, 부모님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때문에 늘 비린내가 배어 있더라도 그 냄새가 바로 어머니 냄새, 사랑스런 냄새로 여겨질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성경 말씀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눈물 흘리던 때를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자신이 하느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정부 최종운 신부님 강론 중에서)

수요 기도회		2008년 1월 30일(수요일)
진행: 신 미카엘라	라 어거스틴, 신 미카엘라	참가 가족: 17명
복음 묵상:	데살로니카 전서 4 장	골로사이서 3,12~17 절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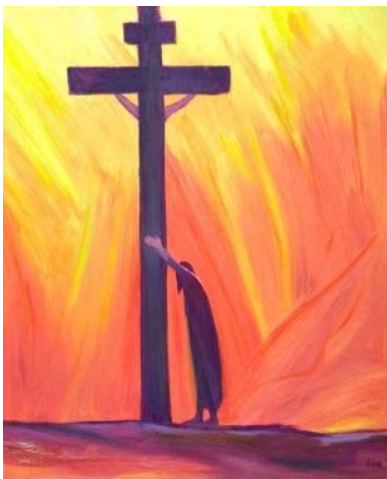
- * 12월 부레 계속 기도회에 못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우울증이 오고...
- 내 자신이 내가 아닌 것 같음, 절대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주님께 감사
- * 묵주 기도를 시작 했는데 분심이 너무 심함,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지 궁금...
- * 비록 분심이 들더라도 입으로 하는 성모송을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분심이 들어도 계속 해야 됨
- * 하느님께서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2년 동안 식사 전에 똑같은 지향으로 기도를 했는데 올해 드디어 이루어짐
- * 기도회가 어떤지 주위 사람들이 많이 물어 보는데 밖에서 보면 시끄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영적 고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서는 시끄럽지 않음, 깊은 고요 속으로 빠짐을 느낌.
- * 새해 들어서면서 부러 계속 인간적으로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김, 순간 순간 세상적인 일로 화도 나고 ... 이것 또한 내가 낮아지면 화 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 * 앞으로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만 낮아지자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낮춘 날은 편하다
- * 힘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한다. 진짜 자기가 하느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다 털어 버렸을 때 기도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다. 자신을 비운 기도가 얼마나 힘있는 기도 인가...



예수님께서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1분 명상

“사순절의 의미와 전례”



사순절(四旬節)

사순 시기의 신자 생활(요약)

명칭: 사순 시기를 '거룩한 40 일' 혹은 '40 일 간의 연중 피정 시기'라고도 한다.

계산: 7(일) x 6(주간)-6(주일)+ 4=40

기간: 재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저녁 주의 만찬 미사 전까지

주제: 성세회상, 참회, 보속, 기도, 이웃사랑

목적: 빠스카 신비(예수 부활 축제) 준비

전례: 모든 미사 중 "대영광송"(대축일 제외)과 "알렐루야"를 뺀다.
 자색 제의(통회와 보속의 표시)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은 성가 반주를 위해서만 연주할 수 있고, 단독연주는 금한다.

의무사항: 금식과 금육(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금육은 매주 금요일),

단식은 성년(20 세)부터 60 세, 금육은 만 14 세부터 죽을 때까지, 관공성사

실천권고: 피정, 십자가의 길(금요일), 평일 미사 참여, 매일 성서읽기, 이웃돕기, 술 담배끊기, 저금통 채우기

***'십자가의 길' 기도**

<특전>

- 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옥영혼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 ②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은총 중(큰 죄가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③ 성당이 너무 멀어 갈 수 없는 사람이나 병자, 항해자, 군인, 죄수 등과 같이 정해진 규정대로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방사 십자가를 들고 기도함으로써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있다.